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 필수과목 개설현황 조사연구 - 4년제 작업치료학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

목적 : 국내 4년제 작업치료학과와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 필수과목들의 개설현황을 조사하여, 작업치료사와 관련이 깊은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대학의 대비 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관련하여 교과과정 심의를 준비하거나 표준교과과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전국의 4년제 작업치료학과 32개교의 교과과정 정보를 수집하여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 필수과목들의 개설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결과 : 첫째, 공통필수 과목인 '장애아동의 이해' 개설학교는 9개교(28%)였고,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 '신경과학/신경해부학'은 32개교 전부에, '감각처리장애와 중재/감각통합치료학'은 31개교(97%)에, '아동검사 및 평가'와 '감각재활현장실습'은 각각 동일하게 7개교(22%)에 개설되어 있었다. 둘째, 유사과목을 포함한 경우, '신경과학'과 '감각처리장애와 중재'와 '아동검사 및 평가'는 32개교(100%) 전체에 개설되어 있었으나, 실습교과의 유사과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전국 4년제 작업치료학과와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대비도 점수의 경우, 7점에 해당하는 대학은 4개교, 6점은 4개교, 5점은 2개교, 4점은 1개교, 3점은 2개교, 2점에 해당하는 대학은 19개교였다.

결론 :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전공필수 교과들의 경우 실습을 제외한 다른 3 과목은 유사과목을 포함하여 전국 4년제 작업치료학과 32개교에 전부 개설되어있어 전문성 측면의 대비는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공통필수인 '장애아동의 이해'와 실습교과인 '감각재활현장실습'의 개설현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현황이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과과정 상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정확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각발달재활사 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공통필수 교과와 필수 실습교과의 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더불어 감각발달재활사 기준 지정명칭의 과목을 개설하고 제시되어 있는 교수요목을 고려하여 과목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 감각발달재활, 감각통합치료, 교과과정, 발달재활서비스, 작업치료, 제공인력 자격기준

I. 서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07년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높은 재활치료비용에 대한 장애

교신저자: 김지현(jhkim.feoot@gmail.com)

접수일: 2017. 11. 30. 심사일: 2017. 12. 10. 게재승인일: 2017. 12. 26.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한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현재는 2012년부터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간으로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Cho, Kang, & Jin, 2015; Kim, Kim, & Kang, 2015; Kwon, 2016).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복지서비스 시장에서 활성화되면서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제도’로 이어지게 되었고, 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점점 국가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변화 및 확장되면서 급속하게 팽창하게 되었다(Choi, 2013; Kim & Bae, 2013). 관련 민간자격의 경우는 2008년 8개, 2009년 25개였던 것이 2012년 113개, 2013년 말 450여개, 그리고 2014년 8월 기준으로는 총 53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Kang, & Jin., 2015; Kang & Cho, 2014; Kwon, 2016; Moon, 2015).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발달재활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인력은 약 8900명,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약 1500기관, 서비스 사용자 수는 약 55,000명이었고, 2017년도에 투여 될 공적자금의 예산은 약 650억에 이른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2017).

발달재활서비스(구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확대가 의료기관을 통한 재활치료가 보장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는 많은 장애 아동들에게 치료 혜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 작업적 정의(occupational justice) 구현에 이바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위험과 우려가 늘 뒤따르기 마련이며,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논의 점이 되곤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많은 선행 연구들이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선정 기준,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만족도, 치료사의 전문성, 물리치료·작업치료 제외의 문제 등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개선방향들을 제시해 왔는데(Choi, 2013; Kang & Cho, 2014; Kim, 2012; Kim & Bae, 2013; Moon, 2015; Song, 2014; Yang, Oh, & Chun., 2010; You & Choi, 2012), 이들 연구 대부분의 공통된 논의 점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것이다. 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치료사의 전문성과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Yang, Oh, & Chun, 2010)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국가가 관리감독지원 하는 것의 근간이 되어왔다. 2015년,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2017)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 자격기준에 대해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14과목(42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3) 대학원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7과목(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이 개정 방향에 따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자격관리사업의 주된 내용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민간자격을 제한 및 관리하고, 국가인증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격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나아가 필요한 정규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교수요목 및 세부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https://www.broso.or.kr/cert/index.html>).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2017)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을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영역은 언어영역을 제외한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총 9개 영역이다.

기존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의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특수교육, 행동치료, 운동치료, 미술치료 등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Kim, Cho, Park, & Lee, 2014; Jo, 2010; Yun, 2016). 작업치료는 발달과정 중 신체적·인지적·심리사회적 기능과 활동수행이 저하된 사람에게 각각의 배경상황과 작업에 적합한 신체기능과 수행기술을 향상시켜 최적화된 작업수행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그들의 건강과 웰빙(well-being)과 참여(participation)를 이끌어내는 보건의료 전문분야이다. 작업치료사는 이를 위해 감각운동/신경발달적(sensorymotor/neurodevelopmental), 생체역학적(biomechanical), 인지발달적(cognitive-developmental), 심리사회적(psychosocial) 등 여러 이론의 틀(frame of references)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의 치료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실 작업치

료는 감각, 운동, 인지, 심리, 행동 등 발달재활서비스의 많은 분야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지만, 현행 발달재활서비스 중 작업치료 전공의 고유성 및 전문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감각발달재활로 인식된다. 감각발달재활은 의료적 작업치료 임상에서는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로 불리는 행위와 가장 유사하다. 감각통합은 발달 과정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지만(Hong & Hong, 2017) 특히 소아재활분야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Choi, 2011), 작업치료 임상에서는 주로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한 치료 기제 중 하나이다(Choi, Kang, & Kim, 2008, Kim, 2015; Kim & Kim, 2007; Ji & Young, 2002). 현행 발달재활서비스의 영역 중 하나로 제시되는 감각발달재활 서비스는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감각통합치료와 동일한 수준과 질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맥락의 유사 치료활동으로 인식해도 무방할 것이다.

작업치료사는 대학 교과과정을 통해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는 것이 일반적 이어서, 국가자격인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감각통합치료 제공인력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업치료사에 의한 감각통합치료 행위가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범리적 용, 의료계와의 직역갈등 발생 등의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며, 그것의 임상적 적합성, 정당성, 적법성에 대한 쟁점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Choi, 2013; Kim & Bae, 2013). 현행 보건의료복지 체계는 감각통합치료 행위가 비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뤄질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일환인 감각발달재활 서비스로써 시행되어 야만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은 그 서비스 제공 자격을 국가시험을 거쳐야 하는 국가자격보다는 한 단계 낮은 자격으로 자격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형태이다. 이러한 제도에는 감각통합치료가 자칫 감각발달재활이라는 명칭으로 둔갑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과, 인력수급과 경제적 지원이 원활해지면서 더 많은 장애아동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 측면, 즉 득과 실이 둘 다 공존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은 이런 면에서 실을 줄이고 득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치료 직종 또한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래의 작업치료사인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에게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감각통합치료 또는 감각발달재활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감각발달재활사라는 추가적인 자격 취득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보자면, 작업치료 전공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감각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 및 기술을 이미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작업치료 교육과정에 따라 어떤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감각발달재활 서비스 자격을 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의 우려가 있는 점이다. 즉, 최상위 국가자격인 작업치료사 면허가 작업치료사의 직무 내용 중 하나인 감각통합치료의 유사 치료활동, 즉 감각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한 제공 자격(하위 자격)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대학교육기관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작업치료사 양성 교육과 감각발달재활사 양성 교육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높은 질적 수준의 감각발달재활사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4년제 작업치료학과와 교과과정 분석을 통해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 필수과목들의 개설현황을 조사하고,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 사업에 대한 대학의 대비 정도를 점검하여 향후 관련 교과과정 심의를 준비하거나 표준교과과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작업치료학과에 개설된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과목들의 개설현황을 파악하고 교과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소재한 4년제 작업치료학과 32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인 대학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작업치료학과 32개교의 교과과정 정보를 수집하였다. 정보의 객관성의 유지를 위해 각 대학의 온라인 홈페이지, 대학생활안내 책자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2017년도 시점에 공시되어 있는 최신 교과과정 정보를 수집하였다. 교과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 분석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학과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1단계는 객관적 분석으로, 수집된 전국의 4년제 작업치료학과 32개교의 교과과정 정보를 토대로 감각발달재활사 필수과목의 개설현황을 파악하였다. 2단계는 주관적 분석으로, 본 연구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종합적 대비도를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3을 이용하여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각 과목의 개설현황에 대해 엑셀의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과목을 찾은 후, 모든 과목에 대하여 수작업을 통한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1) 개설현황 분석

현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과목들 중 필수과목은, 공통필수는 1과목 - ‘장애아동의 이해’, 전공필수는 4과목 - ‘신경과학’, ‘아동검사 및 평가’,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감각재활현장실습’이다. 해당 다섯 필수교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설현황을 분석하였다; 1) 공통필수 과목(장애아동의 이해) 개설현황: 2) 전공필수 과목(신경과학, 아동검사 및 평가,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감각재활현장실습) 개설현황: 3) 전공필수 과목 유사과목 개설현황.

본 연구에서는 개설현황 조사에 있어 감각발달재활사 기준 지정된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와 유사과목으로 개설된 경우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단, 지정된 명칭으로 개설된 현황 조사에 있어 명칭이 약간 상이해도 직관적으로 동일 과목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유사과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해당 지정과목의 동일과목으로 인식하였다. 이를테면, ‘신경과학’의 경우 ‘신경과학’ 또는 ‘신경해부학’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명칭의 교과목 모두 동일 교과로, ‘감각처리장애와 중재’의 경우 ‘감각통합’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명칭의 교과목 모두 동일 교과로 인식하여 개설현황에 포함시켰다. 유사과목 개설현황 조사의 경우, 유사과목의 선정은 과목명의 유사성 및 선정된 과목의 전형적 교과정보가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Location	Schools (n)
Gangwon-county	3
Chungcheong-county (including Daejeon)	11
Kyongsang-county (including Daegu, Busan)	7
Jeonla-county (includign Gwangjoo)	11

Table 2. Criteria of Provision Evaluation

Dimension of Provision	Sub-condition for Each Dimension	Score Allocation
Willingness : Establishment of Purposive Subject	Either ‘Understan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UDC)’ or ‘Practicum of Sensory Rehabilitation(PSR)’ is established	1
Accuracy : Designated - vs. Alternative Subject	Number of subject with appointed title ≥ 3	3
	Number of subject with appointed title = 2	2
	Number of subject with appointed title = 1	1
Completeness : Amount of Subject Establishment	Total number of subject established = 5	3
	Total number of subject established = 4	2
	Total number of subject established = 3	1

교수요목 내용과 유사한지 여부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검사 및 평가'의 경우 과목명에 '아동' 또는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동의 신체기능 검사나 평가에 대한 학습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인 '아동작업치료학' 또는 심리평가 교과를 유사과목으로 선정하였다.

2) 대비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개설현황 결과를 토대로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각 대학의 대비도를 분석하였다. 대비도 평가는 크게 의지도(willingness), 정확도(accuracy), 완성도(completeness) 세 가지 측면으로 실시하였고 각 측면의 세부 요인을 충족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누적되는 점수의 합을 토대로 대비도 지수를 결정하였다. 의지도 총점은 1점, 정확도 총점은 3점, 완성도 총점은 3점으로 전체 총점은 7점 만점이며, 합산된 총점이 높을수록 대비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체 평가 기준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의지도'는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 대비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과목의 개설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과목은 현 자격관리사업의 체계에서 그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는 공통필수 교과와 실습 교과이다. 해당 교과인 '장애아동의 이해'와 '감각재활현장실습'은 전통적인 작업치료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경우가 드문 교과로써, 이들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자격관리사업에 부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둘째, '정확도'는 교과들이 지정된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느냐 유사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느냐에 대한 평가이다. 지정된 명칭, 즉, 감각발달재활사 기준에 맞는 과목명의 교과가 개설된 경우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정확히 지정된 명칭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셋째, '완성도'는 개설되어 있는 과목의 총 수에 대한 평가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감각발달재활사 필수교과 5 과목에 대해 개설된 수가 많을수록 완성도 점수가 높아지는 형태이다. 5 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3점, 4 과목 개설의 경우 2점, 3 과목 개설의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공통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 개설현황

발달재활서비스 전 영역의 공통필수 과목인 '장애아동의 이해'와 감각발달재활사 전공필수 과목인 '신경과학,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아동검사 및 평가', '감각재활현장실습'의 개설현황은 Figure 1과 같다. '장애아동의 이해'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9개교(28%)였다. '신경과학'의 경우 '신경과학' 명칭이 포함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4개교(13%), '신경해부학' 명칭이 포함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28개교(88%)로, 32개교 모든 학과에 개설되어 있었다. '감각처리장애와 중재'의 경우 정확히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명칭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4개교(13%), 감각통합치료학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27개교(85%)로 1개교를 제외한 31개교(97%) 학과에 개설되어 있었다. 반면, '아동검사 및 평가' 개설 학교는 7개교(22%), 그리고 '감각재활현장실습' 또는 '감각통합치료실습'의 교과로 실습과목이 단독으로 개설된 학교 또한 7개교(22%)로 저조한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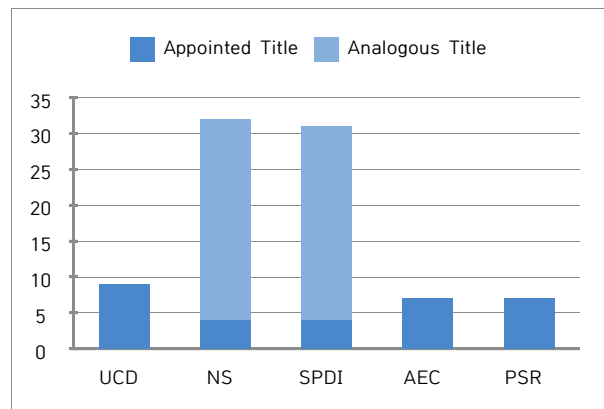


Figure 1. Establishment Status of the Designated Mandatory Courses for Sensory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pecialist(SDRS) Qualification

* UCD : Understan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NS : Neuroscience, SPDI : Sensory Processing Dysfunctions and Intervention, AEC : Assessment & Evaluation for Children, PSR : Practicum of Sensory Rehabilitation

2. 유사과목 개설현황

감각발달재활사 전공필수과목 유사과목 개설현황은

Figure 2와 같다. 신경과학은 100% 개설되어 있어서 유사과목 개설현황은 0%로 계산되었다.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유사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1개교(3%)였고, ‘아동검사 및 평가’ 유사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26개교(81%)였고, ‘감각재활현장실습’의 유사과목으로 인식되는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없었다(0%). 본 연구에서 ‘감각처리장애와 중재’의 유사과목으로 선정된 과목은 ‘아동작업치료와 중재’였고, ‘아동검사 및 평가’의 경우 심리평가, 심리검사 및 평가, 심리행동 평가, 아동평가, 아동작업치료학, 아동작업치료평가, 아동작업치료 2, 작업치료평가 2, 발달장애 작업치료학이 유사과목으로 선정되었다 (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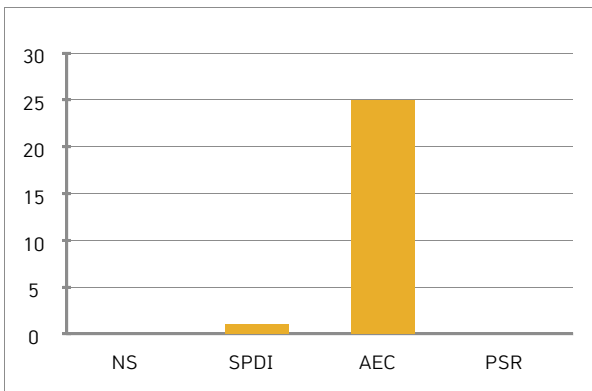


Figure 2. Establishment Status of Alternative Branched Mandatory Courses for SDRS Qualification

3. 종합적 개설현황

감각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유사과목을 포함한 공통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의 개설현황은 Figure 3과 같다. ‘장애아동의 이해’ 개설 학교는 총

9개교(28%)였다. 앞서 언급된 대로 ‘신경과학’ 교과는 32개교 모든 학과(100%)에 개설되어 있었고, ‘감각처리장애와 중재’와 ‘아동검사 및 평가’는 유사과목 개설의 경우를 포함할 경우 32개교 전부(100%)에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습 과목인 ‘감각재활현장실습’의 개설 학교는 7개교(22%)로 다른 모든 교과들에 비해 개설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 대비도 현황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전국 4년제 작업치료학과의 대비도 현황은 Figure 4와 같다. 7점 4개교, 6점 4개교, 5점 2개교, 4점 1개교, 3점 2개교였다. 마지막으로 2점에 해당하는 대학은 19개교로 과반 수 이상의 대학이 낮은 대비도를 보였다. 각 대비도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세부점수 산출 내역에 대한 공통된 특성은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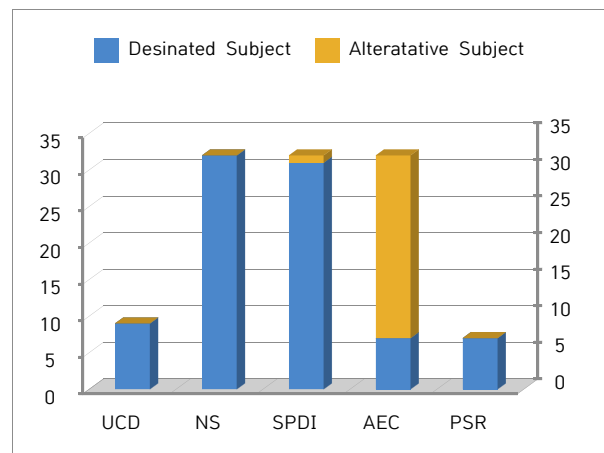


Figure 3. Establishment Status of the Mandatory Courses for SDRS Qualification - Designated & Alternative

Table 3. List of Alternative-Mandatory Courses

Designated Course	Recognized Alternative Courses
Sensory Processing Dysfunctions & Intervention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 Intervention
Assessment & Evaluation for Children	Psychosocial Evaluation, Psychosocial Assessment & Evaluation, Psycho-behavior Evaluation, Occupational Therapy Evaluation for Children,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2, Occupational Therapy Evaluation 2, Occupational Therapy for Developmental Dysfunctions

Table 4. Common Characteristic of Schools Based on the Provision Score

Provision Score	Common Characteristic (Score Breakdown)
7	W score: 1 + A score: 3 + C score: 3
6	W score: 1 + A score: 3 + C score: 2
5	W score: 1 + A score: 2 + C score: 2
4	W score: 1 + A score: 1 + C score: 2
3	A score: 2 + C score: 1 or A score: 1 + C score: 2
2	A score: 1 + C score: 1
1	does not re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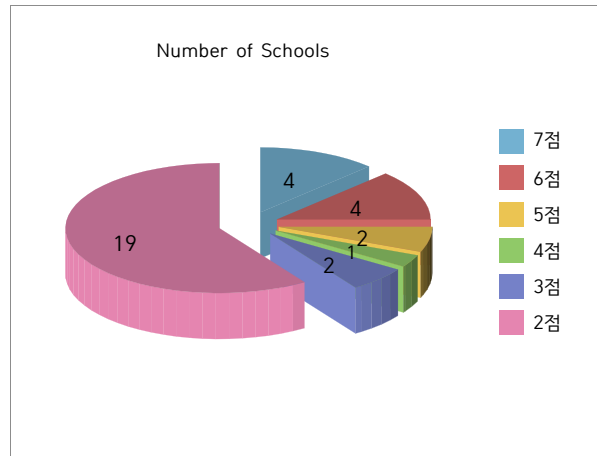


Figure 4. Provision level score of BOT program for the Certification of SDRS

요가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과목의 교수요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과개요를 살펴보면, 장애아동의 정의 및 특성, 진단방법, 중재방법, 교수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한 학습이다(<https://www.broso.or.kr/cert/index.html>). 전통적인 작업치료 교과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작업치료학, 재활심리학 등의 교과에서 장애아동의 정의 및 특성 또는 중재방법 등이 부분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목명이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과 명칭 면에서 유사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현행 자격관리사업의 지침상 유사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시되어 있는 교수요목의 세부사항과 60% 이상 동일해야 하므로, 기존의 아동 관련 교과목이 ‘장애아동의 이해’의 유사과목으로 심의 받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감각발달재활사 자격 심의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공통필수 지정과목인 ‘장애아동의 이해’ 교과목의 개설 또는 유사과목의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고 찰

1.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과목 개설 및 운영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국 4년제 작업치료학과 32개교의 감각발달재활사 필수과목 관련교과의 전반적 개설현황에 대해 과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필수 - ‘장애아동의 이해’

조사결과 ‘장애아동의 이해’가 개설된 학교는 9개교에 불과하다. ‘장애아동의 이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이라는 전제 하에, 발달재활서비스 분야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지정된 만큼, 엄중한 무게로 받아들일 필

2) 전공필수 - ‘신경과학’

신경과학 교과는 모든 대학에 개설되어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작업치료학 전공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과목이라도 할 수 있다. 다만, 과목 명칭에 있어서 대학에 따라 크게 신경과학과 신경해부학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고, 이 명칭들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혼용되는 것들이어서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과목의 정체성이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 큰 해석의 차이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신경과학은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모든 대학에 가장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과목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전공필수 -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또는 감각통합치료 교과는 1개 대학만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개설 현황에 있어서는 신경과학과 마찬가지로 과목 명칭에 있어서 작은 차이만을 보이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유사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아동작업치료와 중재'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었고, 대학에 직접 확인 결과 교과 내용의 60% 이상을 감각처리장애와 중재에 대해 학습한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목명의 유사성이 떨어지고, 다른 모든 대학이 비슷한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과목명칭 변경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전공필수 - '감각재활현장실습'

실습교과 개설 대학은 7개교로 개설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특정과목에 대하여 선행된 교과과정 연구에서 해당 특수 분야를 반영한 과목명의 실습과목 개설 학교가 이론과목 개설 학교보다 적었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Yun, 2008). 전통적으로 작업치료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주요한 실습교육이 '임상실습'이라는 명칭의 교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특정 환자군 또는 임상세팅과 관련한 명칭을 과목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학교가 임상실습 1, 임상실습 2, 임상실습 3과 같이 시리즈 형태로 실습과목을 개설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각재활현장실습 또는 감각통합치료학실습이라는 단독 실습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상실습 교과목 안에 감각통합치료 실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작업치료학과와 임상실습 관련 선행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아동 분야 실습의 비율이 성인 분야 실습에 비해 적고 학교별로 실습시간의 차이도 많이 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Lee, Jand, Woo & Yoon, 2014), 임상실습 교과가 개설된 모든 대학에서 감각재활 관련 실습을 하고 있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임상 전문가 교육에 있어서 현장실습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이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와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는 Yu(2014)가 지적하였듯이 실습교육이 그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재

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관련 9개 모든 영역에서 실습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실습이 전문성 보장에 있어서 중요함을 부인할 수 없지만, 부족한 실습기관과 수퍼바이저 등 실습교과 운영을 위한 제반 시스템의 확보가 쉽지는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감각발달재활사 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에게 가장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 대비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4년제 작업치료학과와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에 대한 대비도를 분석해보았다. 대비도 평가는 크게 의지도, 정확도, 완성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의지도 평가를 위해 선정된 과목은 현 자격관리사업의 체계에서 그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공통필수 교과와 실습 교과, 즉 '장애아동의 이해'와 '감각재활현장실습'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과목들은 전통적 작업치료 교과과정에 흔히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교과를 개설한 대학은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정확도는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의 명칭이 자격관리사업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정과목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다. 이 부분은 특히 유사과목 심의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정과목의 개설이 많을수록 유사과목 심의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완성도는 개설되어 있는 과목의 총 수에 대한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필수 및 전공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5개의 교과가 모두 개설되어 있는 경우 대비도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 4년제 작업치료 대학들의 자격관리사업 대비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대비도에 해당하는 5점 이상의 대학들이 전체 대학의 약 30%에 해당되는 10개교로써 이미 여러 4년제 작업치료 대학들이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요구되는 필수교과 5개 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고 그 개설되어 있는 교과들 또한 어느 정도 유사과목이 아닌 지정명칭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높은 대비도를 갖춘 몇몇 대학은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해 상당히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

나 전체 4년제 작업치료학과 의 과반수가 넘는 19개교에 공통필수 교과나 실습교과 중 어느 하나도 개설되어있지 않고 그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중 자격관리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정명칭의 과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많은 대학들이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대비를 교과과정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은 아직 현재진행 중이므로 수정 보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상당 시간 의견을 모아 규정해놓은 필수 이수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필수 이수 교과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은 사전에 미리 구축해놓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을 주시하며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비도 분석에서, 대비도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장애아동의 이해’ 또는 ‘감각재활현장실습’ 교과의 개설 여부였다. 두 교과는 현 자격관리사업 체계에서 타 교과에 비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흔히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고, 이 중 어느 한 과목이 개설되면 의지도와 완성도가 동시에 갖춰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각발달재활사 양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자격 심의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공통필수 교과인 ‘장애아동의 이해’와 실습교과인 ‘감각재활현장실습’ 개설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각발달재활사 관련 교과를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 자격관리사업 기준 지정명칭을 사용하고 제시되어 있는 교수요목을 고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3.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안점

전국에 소재한 작업치료(학)과 개설 대학은 4년제 32개교와 3년제 30개교로 총 62개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대한 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우선 4년제 작업치료학과 32개교만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3년제 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와 더불어 전국의 작업치료(학)과 대학 전체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시행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공시되어 있는 교과과정 정보만을 기초로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수집정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조치였지만,

대학별로 개정된 교과과정 정보의 업데이트가 실시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분석의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상 학교로부터 직접 과목 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각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한다면, 보다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교과과정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업치료학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많은 영역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감각발달재활사만을 특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자칫 발달재활서비스에 있어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한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작업치료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 기술, 및 태도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의 어느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준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V. 결론

전국 4년제 작업치료학과 의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기준 관련 필수과목들의 개설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통필수 과목인 ‘장애아동의 이해’와 전공필수 과목 중 실습교과인 ‘감각재활현장실습’의 개설현황이 각각 9개교와 7개교로 매우 저조한 현황이다. 그러나 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 지정과목 또는 유사과목이 32개교에 모두 개설되어있어 전문성 측면의 대비는 잘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감각발달재활사 자격관리사업에 대한 대비도 측면에서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이미 대비를 시작했다고는 보이지만 교과과정 상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정확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는, 공통필수 교과 ‘장애아동의 이해’와 전공필수 실습교과 ‘감각재활현장실습’의 개설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과목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 자격관리사업 기준 지정명칭과 교수요목에 대한 확인과 고려가 필요하다.

REFERENCE

Cho, J. M., Kang, J. B., & Jin, M. Y. (2015). A search for an improvement method based on the analysis

- of the issuance status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license.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1), 1-21.
- Choi, J. S. (2011). Systematic review of the research evidence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therapy using a sensory integration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1(2), 71-79.
- Choi, J. S., Kang, D. H. & Kim, J. K. (2008). The effects of sensory integration treatment on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ie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6(1), 33-43.
- Choj, B. C. (2013).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health care and therapy services for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4(1), 61-81.
- Hong, K. H., & Hong, S. Y. (2017). The effect of vestibular stimulation activity on visual per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e age of twenti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7(1), 1-8.
- Ji, S. Y., & Young, N. G. (2002). Postural control, bilateral coordination and motor planning outcomes in child with developmental delay who receive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0(1), 63-70.
- Jo, J. G. (2010). A study on parent's needs of special education related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special schoo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9(4), 113-138.
- Kang, J. B., & Cho, J. M. (2014). A Study on Improvement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2), 91-116.
- Kim, C. H. (2012). *Policy for reinforce of professionals qualification and improvement of service. Assemblyman Gang MS, discussion data from policy for reinforce of professionals of th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or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and improvement of service(pp.17-35)*. Assemblyman Gang MS. Seoul.
- Kim, I. S. (2015) A survey on a status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y in korea. *The Journal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3(2), 1-19
- Kim, J. H., Cho, Y. K., Park, J. Y., & Lee, E. J. (2014).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based on service and personnel of service providing center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1), 1-23.
- Kim, J. H., Kim, K. R., & Kang, J. B. (2015). A study on supporting status and improvement of rehabilitation 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2), 251-281.
- Kim, K. M., & Kim, J. M. (2007). The effects of sensory integrative intervention on the balance and attention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6(4), 103-130.
- Kim, S. Y., & Bae, H. A. (2013). The disabled child support policy in consider of health and medical law system -Focusing on th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13(4), 1723-1753.
- Kwon, B. M.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rvice providers' qualification standard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development rehabilitation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master's thesis.
- Lee, H. S., Chang, K. Y., Woo, H. S. & Yoon Y. Y (2014). Preliminary study of clinical training standardiz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2(3), 37-56.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Guide of business for support the disabled family*.
- Moon, J. W. (2015). Improvement Direction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 1-23.

- Song, E. J. (2014). *Difficulties for cognitive learning therapists working in voucher institu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master thesis.
- Support center for severely handicapped children. developmental disability. Necessary subjects of each category for business of qualification management for th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ersonnel. <https://www.broso.or.kr/cert/index.html>
- Yang, S. M., Oh, H. K., & Chun, D. I. (2010). The influence of the effectiveness, process and environment of rehabilitation therapy service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on the service satisfaction.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2, 1-14.
- You, Y. J., & Choj, B. C. (2012).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therapist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The Education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55(3), 163-183.
- Yu, E. Y. (2014). *Improvement plan for education of th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or management system. Discussion data from management plan of th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ersonnel*.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Yun, E. S. (2008). Study on the curriculum of gerontological nursing-baccalaureate degree programs(BS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188-194.
- Yun, T. H., & Choi, S. G. (2016). Adapted physical activity as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 Exercise*, 25(1), 1-15.

Abstract

Establishment Status of the Mandatory Courses for the Qualification of Sensory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pecialist - Within Curriculums of Baccalaureate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Kim, Ji-Hyun, M.S.O.T., O.T.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Far East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stablishment status of the mandatory courses designated b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for qualification of sensory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pecialist(SDRS), within curriculum of baccalaureate occupational therapy(BOT) programs in Korea

Methods : This is a narrative study to investigate and analyze certain courses established in curriculums of all 4-years occupational therapy(OT) programs, which is 32 schools.

Results : 1) The shared mandatory subject, 'Understan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UDC)', has been established at 9 schools. For the branch mandatory subjects, 'Neuroscience(NS) or Neuroanatomy' has been established at all 32 schools, 'Sensory Processing Dysfunctions and Intervention(SPDI)' or 'Sensory Integration' has been established at 31 schools, and each of 'Assessment & Evaluation for Children(AEC)' and 'Practicum of Sensory Rehabilitation(PSR)' has been established 7 schools for same. 2) For the mandatory courses, all 32 schools were offering designated- and alternative courses of NS, SPDI, AEC, but there was no change in the number of schools offering the practicum course since there was no case of alternative for it. 3) In terms of general provision score, there were 4 schools for score 7, 4 schools for score 6, 2 schools for score 5, 1 schools for score 4, 2 schools for score 3, and 19 schools for score 2.

Conclusion : Establishment of the mandatory courses required to the qualification of SDRS among the BOT programs in nation were investigated. Including alternative courses, all the branch mandatory courses except practicum course are established in all the 32 schools. However, the shared mandatory subject, UDC and the practicum subject were established in only few schools. In the provision level evaluation of BOT programs for the SDRS qualification, it is shown that many schools has been started the provision already but still many schools' curriculum did not reflect the willingness and accuracy well. For the schools planning successful accreditation in near future, it is recommended that they prioritize the establishment of the shared mandatory course and the practicum course since these two subjects are recognized as critical factors for that.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of comparative inspections for course title and syllabi based on the guideline provided b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ey Words :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Sensory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ervice provider qualification, Curriculum, occupational therapy